지식경제부 **보도자료**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2012년 4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김정회 자동차조선과장, 송효정 주무관(2110-4826)

※ 본 보도자료는 조선시황분석기관인 클락슨(Clarkson) 및 한국조선협회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한 내용임

국내 조선산업, '12.1/4분기 세계시장 50% 수주

- 드릴쉽, 가스선, 탱커류 수주 주도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홍석우)와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, '12.1/4분기 국내 조선산업은 전세계 선박발주량의 50.7%(193만CGT)를 수주하며 세계1위(수주기준)를 지속 유지하였음

* CGT(Compensated Gross Tonnage) : 부가가치 환산 톤수
* 전세계 수주현황(만CGT) : (전세계)380, (한)193, (중)105, (일)15, (유럽)30

< 세계 조선시장 변화 추이 *(Clarkson)* >

구분	'09년			'10년			'11년			'12.1-3월		
발주량 (만CGT)	1,640			4,360			3,070			380		
주요 수주국	한국	중국	일본	한국	중국	일본	한국	중국	일본	한국	중국	일본
수주량 (점유율 %)	449 (27.4)	784 (47.8)	194 (11.8)	1,249 (28.6)	2,000 (45.9)	549 (12.6)	1,377 (44.9)	1,021 (33.3)	268 (8.7)	193 (50.7)	105 (27.7)	15 (3.9)

□ 선박공급과잉, 전세계 경기회복 둔화,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우려 등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세계 선박발주량은 전년동기대비 58.9% 하락(380만CGT)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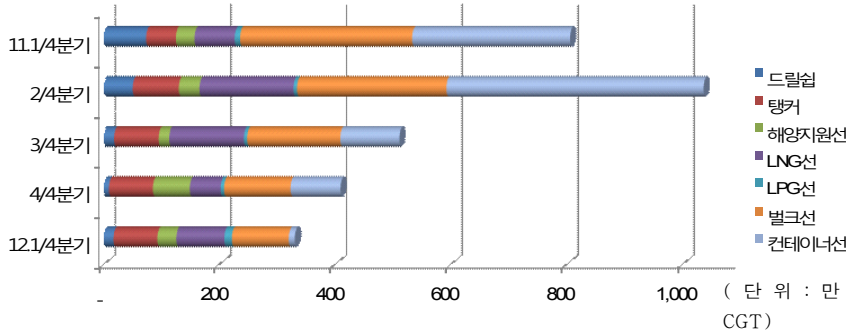
○ 선종별로는 '11년이후 원유·가스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LNG선, 해양지원선*, 탱커** 등이 꾸준히 발주

* 유전개발 및 탐사작업을 돕는 해양작업 지원선
** 금년 1/4분기는 중소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 발주가 대부분

○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*은 선박공급과잉 심화 및 전세계 물동량 감소 등에 따라 지속적인 발주감소 추세

* '11.상반기에는 공급과잉에도 불구, 고유가에 따른 친환경 고효율 선박수요증가 및 물동량 회복 기대 등에 따라 대형·친환경 컨테이너선 위주로 발주 일시증가

< '11년~'12.1/4분기 전세계 주요 선종별 발주현황 *(Clarkson)* >



(단 위 : 만 CGT)

□ 국내 조선산업은 드릴쉽·FPSO·LNG FSRU 등 해양플랜트, LNG선·LPG선 등 가스선, 탱커 등의 대부분을 수주하며, 불황기에서도 국내조선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재확인

○ 1/4분기 전세계 발주된 FPSO(1척, 20억$), LNG FSRU(1척, 2.8억$), LNG선(9척, 19.3억$) 전량을 수주하였으며,

* FPSO(Floating, Production, Storage, Offloading) : 부유식 원유가스 생산, 저장, 하역설비
* FSRU(Floating, Storage, Re-gasification Unit) : 부유식 가스 저장, 재기화 설비

○ 드릴쉽 4척 중 3척(16억$)(*브라질 자국발주 1척), 탱커의 66%를 수주

□ 선박발주 침체에 따라 '12.3월말 전세계 수주잔량이 '11년말대비 약 10% 감소(11,241만CGT)한 가운데, 국내조선산업은 8.1% 감소한 3,564만CGT 수주잔량(전세계점유율 31.7%)을 유지

* 국내조선산업 수주잔량(만CGT) : ('09)5,415, ('10)4,496, ('11)3,878, ('12.3)3,564

□ 불확실한 해운시황과 선박금융 환경하에서도 '12.1/4분기 국내조선산업은 123억달러(잠정치, 전년동기비 약 25%↓)의 수출액 달성

○ 고부가가치 선박수출이 활발했던 전년과 달리, '08.下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불황 및 저(低)선가 시기에 수주한 선박이 인도됨에 따라 전년대비 수출물량 및 수출액 하락

○ 2/4분기도 1/4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